

## 2. 2022학년도 논술 기출문제 (B형)

### 1) 언어영역 [문항B-1] 문항 및 제시문

**가**의 서술자와 **나**의 화자가 처한 상황을 비교하고, 이런 맥락에서 **가**의 ‘피아노 연주’와 **나**의 ‘농무’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700 ± 50자)

**가**

[앞부분의 줄거리]

만두 가게를 하던 나의 집은 아빠가 선 빗보증으로 망한다. 피아노와 함께 언니의 반지하방, 곰팡이만 잔뜩 핀 곳에 머물게 된 나는 집주인에게 시끄러운 피아노는 절대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 나의 언니는 피부나 치아가 계급을 표시한다는 말을 들은 뒤 자꾸 사람들의 이를 보게 되었다며, 헤어진 남자 친구가 만취해 집으로 찾아와 쓰러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입술을 벌려 이를 보았던 적이 있다고 고백한다.

문득 피아노를 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사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일단 그런 마음이 들자,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다. 한 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소리는 금방 사라져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나는 용기 내어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도—”

도는 방 안에 갇힌 나방처럼 긴 선을 그리며 오래오래 날아다녔다. 나는 그 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가슴속 어떤 것이 옆게 출렁여 사그라지는 기분이었다. 도는 생각보다 오래 도—하고 울었다. 나는 한 음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느낌을 즐기려 눈을 감았다.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쿵쿵쿵쿵. 주먹으로 네 번이었다. 나는 얼른 피아노 뚜껑을 덮었다. 다시 쿵쿵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주인집 식구들이었다. 체육복을 입은 남자와 그의 아내, 두 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다. 사내아이는 아빠와, 계집아이는 엄마와 똑 닮아 있었다. 외식이라도 갔다 오는지 그들 모두 입에 이쑤시개를 물고 있었다. 남자가 입을 열었다.

“학생, 혹시 좀 전에 피아노 쳤어?”

나는 천진하게 말했다.

“아닌데요.”

주인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친 거 같은데……?”

나는 다시 아니라고 했다. 주인 남자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내가 곰팡이 애길 꺼내자 “지하는 원래 그렇다”고 말한 뒤,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피아노 옆에 기대어 앉았다. 그런 뒤 무심코 휴대전화 폴더를 열었다. 휴대전화는 번호마다 고유한 음이 있어 단순한 연주가 가능했다. 1번은 도, 2번은 레, 높은음은 별표나 영을 함께 누르면 되는 식이었다. 더듬더듬 버튼을 눌렀다. 미 솔미 레도시도 파, 미 솔미 레도시도 레레레 미…… ‘원래 그렇다’는 말 같은 거, 웬지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부터 폭우가 내렸다. 언니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늦는다고 했다. 벌써 퇴근했어야 하는 시간인데 정산을 잘못된 모양이었다. 언니는 계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 뒤, 안 맞을 경우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고, 같은 일을 반복하며 밤을 새울 터였다. 나는 만두라면을 먹으며 연속극을 보고 있었다. 볼륨을 한껏 높였는데도 배우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리모콘을 잡으니 뭔가 축축한 게 만져졌다. 한참 손바닥을 들여다본 후에야 그것이 빗물이란 걸 깨달았다. 나는 화들짝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에서부터 물이 새고 있었다. 이물질이 잔뜩 섞인 새까만 빗물이었다. 그것은 벽지를 더럽히며 창틀 아래로 흘러내렸다. 벽면은 검은 눈물을 푹푹 흘리는 누군가의 얼굴 같았다.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방으로 들어온 빗물을 퍼내던 중, 나는 ‘돈이 필요하다’는 아빠의 전화를 받는다. 비는 점점 거세지고, 반지하방은 물바다가 된다. 그 와중에 언니와 헤어진 남자 친구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바람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부축하게 된다.

빛물은 어느새 무릎까지 차올랐다. 나는 피아노가 물에 잠겨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저대로 두다간 못 쓰게 될 게 분명했다. 순간 ‘쇼바’를 잔뜩 올린 오토바이 한 대가 부르릉— 가슴을 긁고 가는 기분이 들었다. 오토바이가 일으키는 흙먼지 사이로 수천 개의 만두가 공기 방울처럼 떠올랐다 사라졌다. 언니의 영어 교재도, 컴퓨터와 활자 디즈도, 아버지의 전화도, 우리의 여름도 모두 하늘 위로 떠올랐다 툭툭 터져버렸다. 나는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 깨끗한 건반이 한눈에 들어왔다. 건반 위에 가만 손가락을 얹어보았다. 엄지는 도, 검지는 레, 중지와 약지는 미 파. 아무 힘도 주지 않았는데 어떤 음 하나가 긴 소리로 우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도—”

도는 긴 소리를 내며 방 안을 날아다녔다. 나는 레를 짚었다.

“레—”

사내가 자세를 틀어 기억 자로 눕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편안하게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하나둘 손끝에서 돌아나는 음표들이 녹눅했다.

“솔 미 도레 미파솔라솔……”

물에 잠긴 페달에 뭉뚱뚱 공기 방울이 새어 나왔다. 음은 천천히 날아올라 어우러졌다 사라졌다.

“미미 솔 도라 솔……”

사내의 몸에서 만두처럼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다. 빛줄기는 거세졌다 잦아지길 반복하고, 검은 비가 출렁이는 반지하에서 나는 피아노를 치고, 발목이 물에 잠긴 채 그는 어떤 꿈을 꾸는지 웃고 있었다.

김애란, <도도한 생활>, 고등학교 문학

나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 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룻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신경림, <농무>, 고등학교 문학

2) 사회영역 [문항B-2] 문항 및 제시문

**가**에 제시된 ㉠, ㉡의 견해를 **나**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다**의 판결이 **나**의 정의론에 시사하는 바를 서술하시오.(700±50자)

**가**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수감명령을 선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최 씨는 가정폭행으로 가정보호 송치만 다섯 번을 거쳤다. 이번에도 최 씨는 10만 원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존속 폭행이나 상해의 양형기준은 최대 징역 5년으로 되어 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엄격한 기준으로 강하게 처벌하여 국민의 경각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최 씨의 성격과 행동을 교정하여 가족들이 서로 화해하고 잘 살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강한 처벌보다는 수감명령 등을 선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나**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 오직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게 가해져야만 하는 것이다.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자신이나 동료 시민들을 위한 몇몇 이익을 끌어내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도 먼저 그가 형벌을 받아야 할 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 공적인 정의가 원칙과 표준으로 삼는 것은 어떤 종류의 형벌이고 어느 정도의 형벌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른 한쪽보다 더 기우지 않는 동등성의 원칙이다. 그가 살인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이 경우에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은 없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다**

라과디아(La Guardia, F. H., 1882~1947)는 미국 뉴욕시의 판사와 시장을 역임했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다음은 미국 대공황 시기에 그가 뉴욕시의 판사로 재임 중일 때 있었던 이야기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 2) 해설

### 언어영역 [문항B-1]

#### ■ 일반정보

계열 및 문항		인문계-언어영역 [B-1]
출제범위	과목명	언어영역 : 고등학교 문학
	내용영역 및 핵심개념/용어	타자 이해, 간접 체험, 삶의 다양성

#### ■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적용교육과정	제2015-74호 [별책 5]				
성취기준	제시문 가.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제시문 나.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
고등학교교과서	고등학교 문학	김창원외	동아출판	2020.3	256-260
	고등학교 문학	정호웅외	천재교육	2020.3	156

#### ■ 출제의도

이 문항은, 현실의 반영물으로써 문학 작품이 어떻게 시대와 사회의 문제를 형상화하는지 살피고, 이 과정에서 예술이 줄 수 있는 효용이 어떠한 것인지 파악하는 데 출제의 의도가 있다. 리얼리즘 문학에서, 소설 속의 주인공이나 시 속의 화자는 저마다 시대와 현실의 특별한 문제를 함축한 전형적 존재들이다. 따라서 인물이나 화자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이해하는 일은 작품이 다루는 문제 의식과 주제를 파악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그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문학과 예술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예술은 사회의 문제를 포착하고 환기할 뿐만 아니라,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위안을 주거나, 동일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연대감을 주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전망을 제공하기도 한다.

■ 문항해설

본 문항의 제시문들은 가난과 빈곤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제시문 (가)는 김애란의 소설 <도도한 생활>의 마지막 부분으로 여기에서는 현대 사회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도시 빈곤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독자들은 반지하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나’의 처지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이루지 못하고 고립된 이 시대 젊은이들의 현실을 읽을 수 있다. 한편, 제시문 (나)는 신경림의 <농무>로 1960~70년대 급격하게 진행된 산업화와 맞물린 농촌의 가난과 빈곤이 작품 전면에 녹아 있다. 이 시에서 자본주의 산업화로부터 소외된 농민들의 고단한 삶은 대단히 사실적으로 묘사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피아노 연주나 농무는 작품 속의 화자들로 하여금 비록 잠깐이지만 고단한 삶으로부터 벗어나 그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설 속의 내가 “긴 소리로 우는” 것만 같은 피아노를 연주하는 일은 음악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위로 받는 과정이며, 상실했던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농민들의 농악과 춤 역시 현실의 좌절과 생의 고단함을 승화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농민들은 그와 같은 예술적 경험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감을 획득하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 평가기준

- ① 제시문 (가)와 (나)가 제기하는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가? [이해력, 논리력, 분석력]
- ② 제시문 (가)와 (나)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 이유를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추론력]
- ③ 제시문 (가)와 (나)에서 나타나는 예술의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 ④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가? [추론력, 창의력, 논리력]
- ⑤ 어문규정, 원고 분량 등을 지키고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 평가항목

등급	요건
A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B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② 또는 ③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
C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①, ② 또는 ③, ④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
D	위의 요건 가운데 ①, ②, ③, ④ 중 하나가 기술되지 않거나, 그 중 둘이 매우 불충분하다.
E	위의 요건 가운데 둘 이상이 불충분하게만 언급되어 있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 사회영역 [문항 B-2]

### ■ 일반정보

계열 및 문항		인문계-사회영역 [B-2]
출제범위	과목명	사회영역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통합사회
	내용영역 및 핵심개념/용어	공리주의적 정의관, 응보주의적 정의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 ■ 문항 및 제시문 출제근거

적용교육과정	제2015-74호 [별책 6], 제2015-74호 [별책 7]				
성취기준	<p>제시문 가. [12생윤03-02]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형 제도를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p> <p>제시문 나. [12생윤03-02]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형 제도를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p> <p>제시문 다. [10통사06-01]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을 탐구한다.</p>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
고등학교교과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외	미래앤	2020.3	96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변순용외	천재교과서	2020.3	101
	고등학교 통합사회	이진석외	지학사	2020.3	174

### ■ 출제의도

이 문항은 형벌의 본질에 대한 (가)공리주의적 관점과 (나)응보주의적 관점과의 차이를 이해하는지 묻고, (다)사례를 통해 응보주의적 정의관의 한계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관점에서 비교 유추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 문항해설

(가) 판결 속 ㉠견해는 존속폭행 범죄에 엄한 형벌을 부과하여 국민들의 유사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견해는 가해자의 행동 개선을 목적으로 수감명령이라는 형벌을 부과하여 가해자의 재범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입장은 모두 형벌의 본질을 ‘범죄예방’이라는 사회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공리주의적 시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나)는 칸트가 형벌의 본질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다. 칸트의 응보주의적 정의관은 ‘다른 목적에 대한 고려 없이’ ‘범죄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하는 것을 정의로운 형벌로 간주한다. 이 관점에서, (가)의 ㉠, ㉡견해는, 1) ‘형벌의 목적 측면’에서 일벌백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나 교정교화를 통한 재범방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고,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2) ‘형벌의 강도 측면’에서 존속상해라는 범죄에 비례하는 균형적 처벌이 아닌,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한 처벌을 옹호했다는 측면에서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다)의 판결 사례에서 할머니에게 벌금을 부과한 행위는 칸트식 정의관에 따라 범죄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부과한 것이지만, 동시에 방청객에게도 벌금을 선고한 행위는 할머니의 범죄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과 의무를 지적인 것이다. 이 사례는 개인의 법 위반행위가 완전히 독립된 자아로서의 자유로운 선택은 아니라는 점,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공동체적 연대의식 역시 중요하다는 점에서 (나)의 응보주의 정의관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평가기준

- ① (나)의 응보주의적 정의관의 핵심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력, 논리력]
- ② (가)에 제시된 형벌에 관한 두 가지 공리주의적 시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여, (나)의 응보주의적 정의관에서 적절히 비판하고 있는가? [분석력, 이해력, 논리력]
- ③ (다)의 사례에서 응보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기본 개념을 도출하고, 응보주의적 정의관의 한계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핵심개념을 통해 비판할 수 있는가? [추론력, 이해력, 논리력]
- ④ 어문규정, 원고 분량 등을 지키고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 평가항목

등급	요건
A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B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①, ②, ③, ④ 가운데 하나가 다소 미흡하다.
C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①, ②, ③, ④ 가운데 둘이 다소 미흡하다.
D	위의 요건 가운데 ①, ②, ③, ④ 중 하나가 기술되지 않거나, 그 중 둘이 매우 불충분하다.
E	위의 요건 가운데 둘 이상이 불충분하게만 언급되어 있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 3) 예시답안 및 첨삭평가

문항	B-1	논술유형	B형 (1교시)	구분	언어
예시답안	<p>제시문 (가)와 (나)의 화자는 공통적으로 부정적 현실에 처해 있다. (가)의 화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아버지의 빚보증으로 가세가 기울자 화자는 언니의 고풍이가 가득한 반지하방에서 살게 된다. 이러한 가난 속에서 화자는 꿈과 자유가 억압된다. 집주인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자가 피아노를 치는 것을 금지하고 감시한다. (나)의 화자 또한 가난하고 무시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화자는 동네 처녀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일 뿐이며 농사일은 비룻값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잘 되지 않는다.</p> <p>이러한 부정적 상황 속에서 (가)의 피아노 연주와 (나)의 농무는 화자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이다. (가)의 화자는 천장에서 빗물이 새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편안하게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주저 공간마저 온전치 못한 부정적 상황에서 피아노 연주는 화자에게 희망과 위안을 준다. 억압되었던 자유와 꿈에 대한 갈증을 화자는 피아노 연주를 통해 해소하며 현실에 대한 위로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을 얻는다. (나)의 화자는 힘든 현실 속에서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서 춤을 출 때 신명이 난다고 말한다. 이는 농무가 화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행위임을 의미한다. 농무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며 화자는 부정적 현실로 인한 슬픔에서 벗어나며 부정적 현실에 대한 위안을 얻는다.</p>				
첨삭평가	<p>(가)의 서술자와 (나)의 화자가 모두 부정적 현실에 처해 있다는 공통점을 먼저 서술하고, (가)의 서술자가 아버지의 빚보증으로 고풍이가 가득한 반지하방에서 피아노 치는 것을 금지당한 상황을 나열하며 경제적 궁핍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p> <p>(가)의 ‘피아노 연주’가 서술자에게, (나)의 ‘농무’가 화자에게 위안을 준다고 서술하고, (가)의 빗물이 새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피아노 연주’는 서술자의 억압된 꿈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을 얻게 한다는 표현과 (나)의 화자가 ‘농무’를 출 때 신명이 남으로써 부정적 현실로 인한 슬픔에서 벗어나고 위안을 얻는다는 표현은 예술적 경험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 예술의 가치를 명확하게 드러낸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p> <p>다만 (가)의 서술자의 처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과는 달리 (나)의 화자가 처한 상황을 비룻값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가난하다고만 서술한 점은 1960~1970년대 산업화로부터 소외된 농민들의 고단한 삶과 좌절, 분노 등을 간과한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나)의 화자를 동네 처녀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으로 파악한 점은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이촌향도의 영향으로 농촌이 공동화되어 가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오류로 화자가 처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p>				



문항	B-2	논술유형	B형 (2교시)	구분	사회
예시답안	<p>제시문 (나) 에서는 형벌이 다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동등성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 응보주의적 정의관이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제시문 (가) 의 ㉠과 ㉡ 둘 다 형벌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지 않고, 다른 사회적 목적을 고려한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응보주의적 정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은 형벌을 국민의 경각심 증진이라는 공익 실현의 수단으로, ㉡은 가해자의 행동 개선을 위한 교화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은 범죄와 형벌 간의 균형이 깨졌다는 점에서 제시문 (나) 에서 강조하는 동등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p> <p>한편, 제시문 (다) 에 나타난 라과디아의 판결은 제시문 (나) 에서 강조하는 응보주의적 정의관의 한계를 보완한 사례에 해당한다. (나) 의 응보주의적 관점은 개인이 시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공동체 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약자를 배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재판관 라과디아는 절도죄에 대해 벌금 10달러를 판결하여 범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라는 동등성의 원칙을 충족하였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법정에서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었다. 이러한 판결은 (나)의 응보적 관점만 강조하면 나타날 수 있는 비인간적인 결과를 방지하고, 공동체적 연대를 통해 공공선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p>				
첨삭평가	<p>논제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단을 구성하였다. 첫 문단에서 제시문(나)의 응보주의적 정의관의 핵심 논지를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공리주의적 정의관, 즉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한 범죄예방, 범죄자의 교화를 통한 범죄예방의 수단으로써 접근한다는 점을 응보주의적 정의관에 입각하여 형벌의 목적 측면과 형벌의 강도 측면에서 비판하였다. 특히, 응보주의적 정의관에 따라서 (가)에 나온 2가지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비교적 정확하게 서술한 점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첫 번째 문단에서 (나)의 응보주의적 정의관에 대하여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사용하여 글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게 아쉽다. 제시문 (다)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입각한 라과디아 판사의 판결이 응보주의적 정의관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써 시사하는 의미를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처한 구체적,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응보주의적 관점에 내재된 비인간화의 문제를 인간존중과 배려의 대안으로써 매우 의미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응보주의적 정의관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대안으로써 시사하는 의미를 추론했다는 점이 탁월하다. 그러나 글의 서술 방식이 매끄럽지 못하고 구어체적 표현을 종종 사용해서 증언부연하는 느낌을 준다.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p>				